

피히테의 「封鎖商業國家」論

崔 文 煥

「自然이 許容하는 限 愉快히 自由로히 自然에 對하여 支配的으로 참된 人間답게 地上에 있는 人類가 生存한다는 것은 人類에 對한 空虛한 念願이 아니라 人類의 權利와 人類의 本分과 의 必須한 要求이다. 人間은 勞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무것은 짐을 싣고 睡眠하며 消耗된 힘을 最少限度로 回復한 後에 그 무거운 짐을 運搬하도록 또 安眠을 하지 못하는 禽獸와 같이 勞動하여서는 안된다. 그는 不安이 증거음과 歡喜로써 勞動하며 精神과 眼穴을 蒼穹에 높이도록 時間을 保留하지 않으면 안된다. 人間은 蒼穹을 바라보도록 創造된 것이 다.」

피히테

十八世紀의 八十年代에 이르러 獨逸의 文化는 人類思想史에 있어서로 가장 活氣있는 發展을 하였다. 獨逸古典文學 古典哲學의 偉大한 思想의 高峰이 屹立하고 音樂으로도 그록크·하이덴·모판트의 樂聖이 輩出하였다. 참으로 獨逸學問의 黃金時代이며 世界思想界의 一大偉觀이었다. 특히 칸트 哲學을 繼承, 發展시킨 피히테는 論理的分析에 銳利한 知性을 갖었음뿐 아니라 實踐에 對하여서도 鋼鐵과 같은 意志를 갖었다. 피히테 自身이 「어떠한 哲學을 選擇하는가는 그가 어떠한 人間인가에 依存한다」고 말한바와 같이

피히테의 思想에는 그의 性格이 濃厚히 表示되어있다。 그는 貧困한 家庭에 대여날서 幼時부터 生活苦와 싸우면서 至極히 現實感과 實踐力이 強한 人間으로 되었다。 人類의 敎師되었고 自任한 그는 意志的인 道徳人이어서 그의 哲學으로써 汚濁한 世界를 根本的革新코치한 굳은信念의 理想을가졌다。 그리하여 그의 銳利한 知性은 「知識學」을 分析展開하고 人間의 自主性과 尊嚴性을 堅게하는 그의 道徳的義務感은 「學者의 本分」 및 「道徳學의 體系」의 敘述로되고 그의 굳은 現實的 實踐意志는 經濟問題를 論及한 「封鎖商業國家論」으로 그리고 「獨逸國民에告함」의 愛國的講演으로 表示되는것이다。

二

피히테가 칸트哲學에 接觸하게된것은 피히테의 生涯에 轉換을줄뿐만아니라 獨逸 古典哲學의 發展史에 至大한 意義를 갖게되었다。 이제까지 피히테의 思想을 支配하던 哲學은 活動하는 人間을 包括하는主觀은 因果의 結帶에 얽어매인 連鎖로 생각되었다。 모든 事物은 因果의 連鎖에 依하여 運命的으로 決定된것이어서 自由로운 自我는 許容되지 않았다。 이苛烈한 人間 運命에 對하여 懷疑、苦惱하던 피히테는 칸트哲學에 依하여 人間을 自由로운 存在者로 생각할수있다는 確信을 얻었다。 그는 칸트의 認識作用에關한 理論에서 自由로운 自我는 自然的 因果法則에 從屬하는 存在者가아니고 오히려 自我는 自然生成의 現象우에 君臨하는 自由로운 支配者이라는것을 배웠다。 自我의 自律이 眞實在이며 世界의 根本原理가 있다고 確信하였다。 이제 그는 칸트哲學이 開拓한 理論을 果敢히 展開시키면서 太陽과 같은 明則한 精神으로 그의 生涯의 著作인 「知識學」을 展開하는것이다。

피히테는 칸트의 意識一般則 主觀의 先驗的統覺안에 哲學의 根本原理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自我가 모든事物의 根源이며 모든事物은 이自我의 無限한 創造活動에서 나타난다。 그에依하면 自我만이 唯一한 實在이며 哲學의 唯一한 確實하고 可能한 出發點으로된다。 「自我가있다」는것은 「自我는 自我의

다」는 것과 「自我는 自己自身을 定立한다」는 것이어서 自我의 自己定立을 表現한 것이다。 이와 같이 自我가 端的으로 自己自身을 定立하는 自我는 絶對的自我이다。 이 絶對的自我는 經驗的個我가 아니고 先驗的自我이다。 그리고 이 先驗的自我는 所與의事實(Tat-Sache)이 아니고 事行(Tat-Handlung)이라 한다。 이 事行은 事實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活動하는 意識의 活動이다。 이 事行은 行動인 동시에 行動에 의하여 招來된 것이어서 行動과事實이 同一한 것이며 人間의 自由로운 行動으로서 가장 根源의인 哲學의 統一原理로 된다。

이와 같이 모든 事物의 根據는 自我에 있다。 그리하여 自然現象則 非我는 自我가 自己안에 自己의 限定으로서 定立한 것이다。 「自我는 自我안에 非我를 定立한다。」 이에 人間意識에 있어서는 自我와 非我가 相互制約, 規定되는 關係에 일거뻗게 된다。 따라서 이 關係는 一面에는 非我에 依한 自我의 規定과 他面에 있어서는 自我에 依한 非我의 規定으로 나누어진다。 前者는 自我의 「理論的」關係이며 後者는 自我의 「實踐的」關係이다。 그리하여 知識은 理論과 實踐의 二大部門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非我가 自我의 活動을 規定한다는 것은 다만 受動的인 刻印 또는 投影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自我의 活動에 依하여 非我가 存在한다고 보는 것이다。 絶對的自我의 無限한 活動이 끊임없이 非我에 依하여 妨害된다。 이 自由로운 自我活動을 妨害하는 것이 自我에 對한 非我인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非我는 自我의 活動의 障礙인 때문에 自我안에 생기는 것이며 自我가 自己自身을 制限하므로써 對象이 된다。 自我의 이와 같은 自己制限은 絶對的自我가 妨害되므로 생긴 것이다。 이곳에 理論的自我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絶對的自我는 끊임없이 이러한 制限을 打破하고 이 制限을 넘어서 새로운 活動을 하면서 努力하는데 그의 特性이 있다。 「實踐에 對한 理論의 服從」(die Subordination der Theorie unter das Praktische) 自我에 依한 非我의 規定에 따라서 無限히 努力하는데 實踐的自我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實踐的自我에 依하여 世界

는 새로운 道德的意義를 갖게 되어 人間當爲의 內容이 되어 「우리의 義務의 感覺의인 質料」로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世界는 抽象的인 存在가 아니고 道德的當爲의 內容이 되며 世界의 本質은 絕對的自我的 內容을 形成하게 된다. 이로써 全自然은 人間努力의 對象이 되며 自由로운 道德的行爲은 爲하여 存在하게 된다. 이러한 道德的行動안에 人間은 實際로 世界最良의 眞實在에 參與할 수 있다. 이와같이 그는 因果的必然의 自然世界와 自由로운 睿智의 世界와의 對立을 止揚시키고 自己立法的인 自律的活動性에 理論과 實踐을 統一시킬 뿐만 아니라 世界一切의 窮極的인 原理가 있다고主張한다. 이것이 피히테 「知識學」의 根本的 要請이었다. (이點 Ernst von Aster, Grosse Denker 2 Bde 中の Fichte 四目, F. Medicus, Dreizehn Vorlesungen über Fichte 參照) 참으로 피켈트가 評한바와같이 피히테는 「行動하는 思索者, 認識하는 實行者, 靜觀과 活動을 아울러 包擁한 哲學者, 自己의 理論을 同時に 實踐的으로 生活하는 哲學者」이었다. 「Rickert; Fichte 社會主義의 哲學的基礎」

一七九四年 「全知識學의 基礎」를 發刊한 그는 이 知識學의 原理에 立脚하여 一七九六年——一七九七年에 「自然法의 基礎」를 公刊하였다. 이는 知識學에 依據한 絕對的的自我에서 個別的的自我相互間의 關係則 自由로운 自我相互間에 自由를 保障하는 關係를 究明한 것이다. 이어 一七九七年에는 「知識學新講」 九八年에는 「道德學의 體系」를 續刊하였다. 이러한 活動中에서 그는 그의 人生運命에 至大한 影響을 가지게 된 無神論爭이 일어났다. 이 無神論爭의 結果에 伯林에 避難하게 되어 그는 一八〇〇年 「封鎖商業國家論」 (Der Geschlossene Handelsstaat)을 發表하였다. 이 著書는 피히테가 그의 知識學的인 立場에서 그의 自我哲學은 經濟生活問題에 具體的으로 展開시킨 理論이라 할 수 있다.

三

觀念論의 最高峰인 「知識學」에서 어떻게 經濟理論이 展開되는가? 앞서 본바와같이 피히테에 있어서는

自我가 絕對的으로 思惟되는 것이어서 自然 || 非我에 依하여 規定되지 않으며 도저히 自然 || 非我를 規定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自然的인 것은 自我에 對한 非我로서 自我의 活動에 必要한 強制를 주는 것이 아니라 自我가 스스로 自由活動을 하도록 要請(Auforderung)되는 것이다. 이러한 非我는 自我活動의 積極的인 素材 또는 實質的인 契機가 되어 自我活動에 이바지하며 開發되어야 할 奉仕者로 되는 것이다. 모든 人間은 非我인 自然感性的인 것을 모든 힘을 다하여 追求하며 모든 方法으로써 이것을 變形, 教化하여 生의 內容을 無限히 豐富, 向上하도록 할 것을 要求하게 된다. 그리하여 피히테의 感性文化의 思想이 成立된다. 이곳에 自然과 自由는 相互提攜하며 이 感性文化는 人間으로서이 窮極目的이다. 그리하여 人間은 自己活動을 通하여 積極, 能動的으로 感性文化, 眞히 人間文化를 創造케 된다. 이는 피히테 事行의 哲學에서 나오는 必然的歸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人間은 모든 힘을 다하여 自然界를 變容, 教化하여 人間의 創造的文化營爲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人間의 使命이다. 그러나 人間이 相互共存하고 있는 社會에 있어서는 人間은 다만 他人의 手段으로 使用된 物件(Sache)가 아니고 그 自體 目的을 가진 人格(Person)이다. 人間은 自由로운 人格의 所有者이며 主體者이다. 이러한 自我는 唯我主義者와 같이 無制限과 孤立에 依하여 自由로운 活動을 任意로 할 수 없다. 自我와 같이 他者도 亦是 自由로운 人格의 權利를 갖고 있다. 理性的存在인 人間은 各其 自由로운 主體者로서 相互 他人의 自由를 承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自由로운 自我가 理性的存在者로서 自他的自由를 基盤으로 한 相互作用(die wechse-wirkung)으로 結合된 것이 「合目的的共同體」이며 社會이다. 社會는 自我가 各其自己以外에 도 自由로운 存在者가 있다는 것을 承認하는 同時에 自己의 自由도 他者와 共存하는 以上 制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히테는 「有限의 理性者는 自己以外 다른 有限의 理性者와 같이 一定한 關係——法律關係에 있는 것으로 自己를 定立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다른理性者로 承認할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 「有限인理性者는 感覺世界에 있어서 自由로운 活動에 他者를 參與시키지 않고는 스스로 自己도 이어 參與할수 없다」(Fichte Werke III s. 38)고 한다. 이와같이 自由의 主體者인 人間의 相互共存을 可能케 하는 必要條件이 法이다. 이러한 法的關係가 없으면 理性者는 相互 自由를 承認할수 없게 되며 따라서 自己自身도 自由로울수 없다고 생각한다. 以上 概觀한바와같이 피히테는 「自然法的 基礎」에서 自由로운 自我가 相互共存함에 必須的인 條件으로 法的概念을 導出し키며 法的存在는 自由로운 人格인自我가 感覺界에 個我로서 存在하는限 만다시 있어야 할 前提條件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法에 의하여 自由로운 自我가 비로소 自由로운 人格이 되며 모은 個我는 「自由로운 客體」로 되어 人格의 多樣性이 演繹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道德과 法을 區別하였다. 피히테에 있어서는 道德은 外部的으로 強制가 없어도 善意志에서 出發하는데 對比하여 法은 善意志를 반드시 條件으로 하지 않는다. 勿論 法的關係에 있어서도 人間은 根本적으로 「相互의 信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法的關係의 保障의 條件이나 이러한 相互의 信賴는 心情의 問題이어서 道德의 問題이지 法的問題가 아니다. 그리고 法에는 반드시 強制力이 있어야 權威가 생기는 것이다. 法은 自由로운 個我的恣意로운 自由活動을 相互制限하여 相互關係를 맺도록 하는 때문에 外面的消極的性格을 가진다. 그러나 道德은 純粹自我의 本質에서 일어나는 完成의 義務인 때문에 內面的이며 積極的性格을 갖고 있다. 이와같이 그는 法과 道德의 關係를 區別하므로써 法보다 道德이 높은 秩序를 갖고 있고 또 道德법에 政治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國家, 法的理想은 國家, 法이 없이는 것이며 國家의 活動이 阻止되는게 있다고 생각하다. 이러한 思想은 自然法的인 個人主義 思想이 아니라 介在해있는 論據라 하겠다.

그러나 피히테에 있어서는 啓蒙思想의 自然法思想과같이 國家를 不可避한 禍惡이라고 보는 것이 아

나라 法的關係를 保障하고 完成시키는 不可缺의 條件인 同時에 自我의 自由에 立脚하여 「自由로운 客體」이라고 論證한다. 自己와 같은 理性的인 存在者를 他者에게도 認定하는 그의 생각은 漸次 社會 共同體의 倫理를 確立케 하였다. 則 人間이 自我意識과 自由에 到達함에는 他者의 精神에서 얻는 影響 또는 感化가 있는 것이다.

「모든 個人은 人間되도록 教育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人間은 人間될 수 없다.」人間은 다만 自己個人 안에서만 人間될 수 없다. 人間되려면 必然적으로 多數이라야 한다. 이와 같이 人間의 概念에서 「他者」의 概念을 承認코저한다. 이 「他者」의 概念에서 그는多數의 「自由로운 客體」를 承認하고 相互間에 教育, 感化關係가 있는 것을 展開한다. 이러한 共同體的 要素는 一七九七年 自然法論의 第二部 또는 應用自然法(Zweiter Teil des Naturrechts, oder angewandtes Naturrechts)에서 더욱더 顯出되고 있다. 이곳에서 그는 國家를 한 自然有機體에 類推하여 한 有機的全體로 表象하고 있다. 그것은 砂丘의 各部分이 散在해 있는 것과 相異하여 事實上 結合되어 있는 統一體이다. 그것은 마치 自然的 有機體에 있어서 部分과 全體와의 關係와 같이 社會에 있어서도 各個人은 全體안에 自己固有한 地位를 차지하는 同時에 이에 依하여 社會全體가 維持存續하는 것이며, 그리고 社會全體는 個人의 固有한 活動에 依하여서만 自己自身을 存續시킬 수 있다. 이러한 各個人의 有機的結合에 依해서만 人類全體는 多樣性을 通하여 理性이 要求하는 統一體로 되는 것이다. (Leon Xarier Fichte et son temps Vol II. p. 78)

以上 概觀한 바와 같이 피히테는 國家有機體理論을 展開하여 法的共同體로서의 國家가 人間社會生活에 不可缺한 條件으로 보며 經濟問題에 對하여서도 經濟的自由主義를 排斥하는 社會主義的結論을 抽出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共同體的要素를 國家有機體理論을 中心으로 하여 展開하는 것이나 아직 個人의 道德的自由를 強調하는 思想이 強力히 그 基調에 흐리고 있다. 個人의 自由, 道德的自由의 理想이 그의 理論의

基軸이 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의 社會理論의 展開에는 個人主義的要素와 社會共同體的 要素가 混在, 交織되어 있다. 빈더(Binder)가 「피히테의 社會論은 國家의 恣意性 및 偶然性에 關한 啓蒙的見解와 自我를 理性의 沒個性的 純粹性에까지 純化시킨 形而上學的 見解와의 結合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것은 該般의 事情을 傳하는 것이다. 피히테의 經濟理論인 「封鎖商業國家論」도 이 兩要素의 基礎에서 展開되는 것이다.

四

피히테의 經濟理論을 追求해보자. 앞서 본바와같이 人間이 相互非存하기 爲하여 法的關係를 갖게 되는바 이러한 法的關係가 成立하기爲한 條件으로서 피히테는 基本權(Urrechte)을 가장 基本的으로 保障할 權利이라고 主張한다. 이 基本權은 마티안느·웨버에 따라 다음의 세가지로 歸結시킬수 있다. 則 ① 自己身體에對한 自由로운 自己規定의 權利 ② 財産權 ③ 모든 合目的行爲의 條件으로서의 生存權이다. (Gertrude Weber Fichte Sozialismus und sein Verhältniss zur Marxschen Doktrin, S. 32) 이 基本權은 「各人格이 人格되기 爲하여 絶對적으로 歸屬시켜야 할 權利」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實에 있어서 「絶對의 第一原因인 能力」인 同時에 그 作用에 있어서 量的으로 「全權 何等的 限界도 없으며 그의 本性에 있어서는 無限이라」고 한다. 則 이 基本權은 그의 知識學의 原理에서 導出된것이며 人間의 共同生活에 있어서 모든 個人關係를 規整하는 基準이 된다고 생각한다. 各個人이 가진 이 基本權을 保護 또는 實現하는데 國家의 職務는 있다. 그는 이제까지의 國家에對하여 過大評價하는 輿社國家觀과 過少評價하는 自由放任의인 國家觀을 排除하면서 國家의 職務는 「各其에게 自己의 것, das Seinige)을 주되 그에 財産을 얻도록하고 其後에 이狀態를 保護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Fichte Werke III, S. 329) 피히테는 經濟理論展開의 中心點을 所有權에 둔다. 所有權은 自我의 自由로운 活動에對한 權利이라

한다. 自由로운 行爲、活動에對한 權利가 所有權이라면 自己와같이 他者도 亦是 이러한 權利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所有權」은 相互制限되어 各人은 各其 自由로히 行爲하며 他人의 行爲를 排除하는 特定한 範圍가 定해지야 할것이다. 則 他者가 自己에 對하여 그러한것을 하지못하는 條件 밑에 自己도 他者에對하여 그러한것을 못하도록 相互認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비로소 人間은 各其 自己의 것인 어떤物件을 自己에만 歸屬시키고 快코 他人에게는 歸屬시키지않은 어떤物件을 가진다. 則 權利——排他的權利(ausschließendes Recht)를 가지게되는바 이것이 所有權이다. 이와같이 그는 自我의 自由로운 活動에서 所有權을 導出한다. 그는 이제까지 物件에對한 無制限인 所有權을 前提하므로써 既存所有關係에對한 封建的大土地所有關係의 維持를 擁護하는 생각을 排除하면서 人間自由와 人格의 活動은 可能케하는 所有權을 主張한다.

이와같이 人間은 自由로운 活動의 權利를 가지고있으며 이 自由로운 活動、行爲의排他的 權利에서 財產權이 생긴다. 그리고 財產權과 아울러 「生存權」(Recht auf Existenz)이 人間의 基本權으로 생각된다. 「모든 人間活動의 目的은 生存할수 있다는것이다. 그리고 이 生存의 可能性에 對하여서는 自然에 生을 享受한 모든 사람은 다같은 法的要求를 가지고있다. 則 이것이 그의 「生存權」의 概念이다. 그리고 人間은 다만 生存하기 爲하여 生存하는것이 아니고 좀더 人間다운 生存을 하고저한다. 「人間은 모다 可及의으로 快適하게 生存하고자한다. 그는 人間으로서 이것을 要求하며 누구라도 他人보다 以上 또는 他人보다 以下로 人間인것은 없는때문에 이 要求에는 人間은 다같이 正當하다」(피히테上揭書의 55頁 이하)이 人間의 生存權은 不可缺의인 權利인 同時에 必然하게 生存의 條件이 되나니 人間이 生存에 必要한 衣食은 勞動能力이있는 者이면 모다 自己勞動에 依하여 얻지않으면 生存할수없다. 그리하여 「各人은 自己勞動에依하여 生活하지않으면 안된다.」生存權은 裏面으로는 勞

動權이어서 勞動權이라는 生存조차 確保할수없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그는 勞動의 倫理的意義를 強調한다. 그에依하면 人間의 倫理的 성격은 自由活動에 있으므로 怠惰는 徹底한 罪惡으로된다. 「自然은 人間을 自由에로 定하였으나 그는 오로지 活動을 通하여서만 自由로 된다」 이와같이 人間活動, 勞動은 人間의 倫理的人格의 實現化에 唯一한 手段으로된다. 人間은 勞動을 通하여 生存하며 人格을 實現하는것이다. 理性的存在者인 人間으로서의 自由와 品位를 지킬 程度의 勞動이라야한다. 그는 다음 의有名な 句節에 그것을 如實히 表現한다.

「自然이 許容하는限 愉快히 自由로히 自然에對하여 支配的으로 참된 人間답게 地上에있는 人類가 生存한다는것은 人類에對한 空虛한 念願이아니라. 人類의 權利와 人類의 本分과의 必須한 要求이다. 人間은 勞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무거운짐을 싣고 睡眠하며 消耗된힘을 最少限度로 回復한 後에 그 무거운짐을 運搬하도록 또 安眠을 하지못하는 禽獸와같이 勞動하여서는 안된다. 그는 不安없이 즐거움과 歡喜로써 勞動하며 精神과 眼穴을 蒼穹에 높이도록 時間을 保留하지 않으면안된다. 人間은 蒼穹을 바라보도록 創造된것이다.」

人間은 이와같이 勞動을通하여 人間다운 生活과 福祉를 享受하여야한다. 그런데 그는 人間의 物質的福祉를 增進시키기爲하여 勞動의 分業이 必要하다고한다. 그에依하면 勞動의分業은 技術과 熟練으로 因하여 生産能率이 昇揚된다. 그러나 그의 分業은 作業分業을 意味하는 것이아니라 다만 職業分業을 意味한다. 國家는 勞動諸部門을 適當히 分配하여 相互間에 均衡을 얻도록 하지않으면 안된다. 社會에 있어서는 이것이 生産者, 工業者, 商業者의 三身分을 根本的으로 區分되어 各身分相互間에 均衡關係를 規律하는 理性國家를 要請하는 同時에 各個人은 所屬하는 身分을通하여 各其 勞動하는 價値에 따라 人間다운生活의 保證을 얻게된다. 則生産者는 自然的生産物의 獲得에 從事하는 農業者이며 工

業者는 이 原生産物에 加工製造하는 者이다. 이 兩身分間에 相互交換을 媒介하는 것이 商業者이다. 이 三身分間에는 各其 從事한 職業에 對한 排他的權利를 가지는 同時에 相互給付한 義務를 지니고 있다. 生産者는 그를 自身을 扶養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工業者에게 食料 및 原料를 支給한 義務를 갖고 있다. 工業者도 亦是 그의 製品을 生産者에게 支給한 義務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兩身分의 中間에 商業者가 介在한다. 生産者와 工業者는 相互間의 直接的인 未來를 斷念하는 代身에 商業者는 原生産物의 生産 및 加工을 斷念한다. 그리하여 商業者는 前二者의 中間에서 未來하므로써 時間과 精力의 浪費를 調節하는 職能을 가진다. 以上の 三身分이 社會의 基本身分을 形成한다. 以外에 法律을 執行하고 公共教育에 從事하며 또는 國家를 防衛하는 等の 特別한 公務者가 있다. 國家는 一定한 基準에 따라 各職業에 從事할 人員數을 一定하게 하며 國家社會의 生産力을 均衡있게 調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各個人이 職業을 통하여 各身分에 所屬된 것은 다만 經濟的利害問題가 아니라 各身分에 規定한 職業勞動은 社會에 職務奉公하는 義務關係에로 結付된다. 則 個人은 身分에 따라 社會全體의 共同勞動에 勞動奉公하므로써 共同社會에 一定한 位置를 차지하여 그의 義務를 完遂할 수 있다. 그가 「오로지 國家에만 不確定數의 人間을 한 封鎖된 全體(Geschlossenes Ganze)의 全體體(Allheit)에 結合하는 것이다」(피히테 上揭書 S. 401)라고 한 一種의 有機體的國家觀이 이곳에도 滲透되어 있다.

이러한 國家에 있어서는 均衡과 調和의 破壞를 抑制하도록 最大의 努力을 하여야 한다. 이 經濟社會의 均衡이 破壞될 危險性은 農業의 凶豊에서 招來될 可能性이 있다. 이點 피히테는 農作物의 凶豊에 의한 需給關係의 不均衡은 穀物證券의 發行에 의하여 國家가 調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均衡을 破壞할 危險性이 많은 것은 오히려 貨幣의 面에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貨幣의 價値는 變動되기 쉽고 法律과 國家權力으로써 이것을 固定、維持하기가 困難한 때문이다. 그러므로 萬若 強制的으로 貨幣價値

를維持시키고저하면 貨幣所有者는 貨幣를 商品所有者는 商品을 隱匿하여 去來가 成立되지않을 危險性
 이있다. (피히테 上揭書의 50頁) 이에對하여 피히테는 貨幣의 素材를 金銀에 두지않고 오로지 國
 內全商品의 價値를 代表하는 記號로서 貨幣를 制定할것을 要請한다. 무엇보다 國家의 必要에따라 任
 意로히 貨幣를 制定하여 國內에 이를 使用케하면된다. 그리하여 外國과는 全然關係없는 國內貨幣(「
 addeceit」)의 樹立을 主張한다. 이러케 樹立된 國內貨幣과 商品과의 價値關係는 法律에依하여 規定되
 며 實質的 要求에 應하여 確立된다. 則 貨幣側과 商品側에서 招來되는 變動에따라서 國家는 法律에
 依하여 이關係를 調節하여야한다.

經濟社會의 均衡과 調和를 維持하기爲하여 國內貨幣가 制定되고 이에基準되어 國內商品은 相互交換
 된다. 그러면 國內商品은 어떻게 相互交換되는가? 그것은 商品의 眞實로운 內面的價値에따라 交換된
 다고한다. 그러면 商品의 참된 內面的價値는 무엇인가? 피히테는 이에對하여 다음과같이 말한다. 「모
 든 自由로운 活動의 또는 모든 自由로운 活動의 結果의 價値는 그것에 依하여 一層더 甚게 生活할수있는 可能
 性이다. 그리고 이 活動의 果인것은 다른物作보다도 그것에依하여 一層더 甚게 生活할수있으면 있
 을수록 그만큼 많은價値가 있을것이다. 物作相互의 相對的價値의 尺度는 사람이 그러한 物作에依하
 여 그동안 生活이되는 時間일것이다」 (피히테 上揭書 111. S. 45) 이러하것이 價値의 尺度되려면 「사람
 은 그곳에서 自己가 單純한生活의 可能性、單純한 營養만을 期待하고 그리고 快適性을 全히 度外視
 하는 것과같은 어떤것을 發見하지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그는 結局 빵의 原料인 小麥에 價値의
 求한다. 勿論 生活의 可能性은 다만單純한 生物的生存이 保證된다는것을 意味할뿐아니라 「休
 息과 睡眠」가 必要하다고 하나 이에對한 客觀的規定은 없다. 이點 피히테는 後日 法律學에서 一層
 注目한 理論을 展開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勞動의 價格은 무엇인가? 答 사는것이다. 그러나 그

것은 두가지의 意味에 있어서 하나는 生命이 維持된다는것, 하나는 生活이 勞動에서 解放되어 安樂하게 지낸다는것. 이 價格이 모든 人間勞動에 依하여 獲得되어 그리고 그들에게 保證되는 財産이다. 그것은 모든 그것에 對하여 同等의 請求權을 가진다. 따라서 生活에 對한 平等의 關係가 各個人의 財産이다. (이하에 上揭書 V III. S. 73) 則 그에 依하면 一定時間의 勞動價値는 生活할분아니다 그 以上의 價値를 實現하게되어 「純粹한 生命의 價値」(Wert des reiner Leben)와 「力」의 剩餘」(der Ueber-schuss der Kraft)로 나누어진다. 이는 後日 맑스가 必要勞動과 剩餘勞動=不拂勞動으로 分類한것에 該當하는것이다. 그리고 特히 그는 價値의 實體인 勞動을 平均이며 計算된 勞動時間」(die Nach einem Durchschnitt zu berechnende Arbeitszeit)에 依하여 測定한다고 主張하였는데 이는 勞動價値學說의 原型은 이루었다고 볼수있다. 우리는 이하에와 맑스간의 理論的構造的 無限한 深淵에도 不拘하고 價値論에 있어서의 이 精神的邂逅에 驚嘆하지 않을수없다.

何如間 이 價値論에 立脚하여 모든 財貨의 價格은 國家가 確定한다. 이 價格決定의 標準은 모든 人間이 比較的裕足하게 生活할수 있도록 하는데있다. 앞서 본 各身分에 適應한 生活保證을 標準으로하여 모든 價格을 計算하고 法律에 依하여 規定하지 않으면안된다. 「그러하여 비로소 各者에게 自己의 것을——自目的인 運數 欺瞞、暴力에 依하여 獲得된것이 아니고 法律에 依하여 그에게 歸屬되는것이 確保된다」 이와같이 一定한 規準에 따라 各職業에 從事한 身分을 策定하고 그들의 勞動에 依하여 經濟社會의 均衡과 調和를 얻도록한다. 이를 可能케 하기爲하여 國內貨幣를 制定하고 商品價値에 따라 모든 財貨의 價格을 確定하고 이를通하여 各身分에 適應한 人間다운 生活과 福祉를享受케한다. 「그런데 이 福祉는 國民의 福祉이라야한다. 少數個人의 福祉이어서는 안된다. 少數個人의 最大福祉가 國民의 最大의 不幸의 가장 顯著한 徵標이며 또 그의 眞實한 根據가 된다는것이 이

따금 있다. 福祉는 모든 人民에게 같은 程度로 擴大하지 않으면 안된다」(피히테 上揭書 111 S. 422-3) 그러므로 國內에 一人이라도 困窮에 沈淪된의 없도록 配慮하여야 한다. 그의 住宅을 裝飾하는 것보다 먼저 모든 者가 充足하게 居住하여야 하며 혼자 華麗하게 衣裝하는 것보다 모든 者가 따뜻한 衣服을 입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社會에 「偶然的幸福」으로 不當한 財貨을 하지 못하도록 極力 抑制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身分에 依한 勞動部門의 分割과 그의 所有權을 是認하면서 社會主義的 結論을 導出하고 있다.

以上 概觀한바와 같은 理性國家에서 勞動分業과 經濟的流通의 均衡에서 어떤 狀態를 確保하기 위하여 外國과의 一切의 流通을 人民에게 禁止한다. 이 理性國家는 一切의 經濟生活이 一定한 組織과 方法에 依하여 統制되어 있는 때문에 統制를 攪亂하는 一切의 外國交流를 嚴禁코저한다. 理性國家는 法的關係에 있어서 人間의 集團을 한 「封鎖的全體」(Geschlossene Ganze)로 形成하는 것과 같이 外部에 對한 經濟關係에 있어서도 한 「封鎖的商業國家」(der Geschlossene Handelsstaat)이다. 外國에 對한 一切의關係 또는 外國貿易이 必要할 때에는 이것을 國家가 統制한다. 이와같이 國家를 封鎖하는 것은 經濟的生産力이 低下하여 原始的生活에로 뒤돌아가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封鎖된 國家에 있어 서도 國民은 그가 居住하는 國家에서 生産되고 製造되는 모든 財貨를 要求하며 國民의 富裕를 向上시켜야 된다. 그리하여 國家는 可及的으로 外國産業을 國內에 移植시켜 從來 國民이 享受하던 外國製品을 自國內에 生産토록 企圖하여야 한다. 그러기爲하여 外國에서 發明的인 化學者, 物理學者, 技術者, 工作者를 招請하여 모든 知識과 技能을 吸收하여야 한다. 이 封鎖된 國家는 徒然히 外國製品에 依存하지 않고 國民의 能力과 勤勉에 따라 그 國家에 適應한 生産能率을 昂揚시켜 國富를 發展시키고자 한다.

그가 要請한 封鎖商業國家는 다만 經濟的인 自足自給의 問題일뿐 아니라 國民的個性의 形成까지로 企圖하고 있다. 피히테는 「... 以上の 諸方策에 依하여 特殊한 生活·制度·習慣을 獲得하고 그의 國家가 一切의 祖國的인것을 忠誠心으로 사랑하는 이와같이 封鎖된 國民질에서는 곧 한 高度의 國民的榮譽와 鮮명한 特徵을 가진 한 國民性이 成立하리라는것은 明白하다. 그의 國民은 以前과 全히 다른 새로운 國民으로 되리라」(上掲書 256) 그리고 또 그는 다음과같이 國民的特性을 強調한다. 「우 리들은 먼저 國民、民族이며 그리고 언제든지 諸民族 相互間의 交涉에 依하여 한 全面的인 純粹한 人間的인 教養에 移行하며 그리고 融合하는 것과 같은 確乎한 國民的教養이 있을것같은 때면 그때에는 말한바와같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보는바에 依하면 우리가 一切이며 또 어디든지 故郷으로 하고 저 努力하는 때문에 도저히 조공도 完成하지 못하고 어찌든지 故郷으로 하지 못하느 것 같다」(上掲書 256) 와같이 피히테는 그의 理性國家에서 다만 社會主義的인 經濟國家뿐만 아니라 一步나 아가 文化的 國民國家의 建造를 要請하여 國民性에 새로운 關心을 表示하고 있다. 世界市民性에 對立한 國民性의 特殊性을 強調한 그는 다만 學問에서만 世界的인 普遍性을 認定한다. 그가 封鎖商業國家에서 外國에 旅行하는者로 다만 學者와 高級의 技術者에만 認定하고 「場所와 民族의 差異를 純粹히 廢棄하고 市民으로서가 아니고 오로지 人間自體에 屬하는것은 學問以外에 없다. 學問에 依하여 그리고 實際 學問에 依하여서만 人類는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民族의 分離가 完成된後에서로서로 持續的으로 聯關한것이며 또 聯關된것이다」(上掲書 256) 이곳에 「精神의 太平洋」이 있으며 그의 理論構造에는 世界主義와 國家主義가 異常히 交錯되어 있음을 엿볼수 있다.

五

以上 우리는 피히테의 「封鎖商業國家論」의 輪廓을 簡單히 보았다. 그는 人間 人格의 自由라는 人

間觀에서 社會主義的理論을 抽出한다。理性을 가진 人間은 各其 人格者로서 權利를 가지고 있는 故에 各其 生存目的을 達成하도록 平等의 機會를 가져야 한다。그러면 平等의 機會는 理性目的에 對한 人間共同的 勞動에 依하여 비로소 實行되는 것이다。『어떤사람도 다른사람을 爲하여 勞動하지 않고 自己自身을 爲하여 勞動할 수 없다』(學者의 使命 日本譯 六一頁) 이렇게 人間共同的 勞動에 相互勞動을 하여 自然을 支配하여 理性的 人間에 相應하는 世界를 建造코저한다。그의 經濟課題는 『自然이 許容하는 限, 愉快히 自由로써 自然에 對하여 支配的으로 참된 人間답게 地上에 있는 人類가 生存』하도록 하는 데 있다。이렇게 外的 自然을 人間努力으로 文化營爲에 이바지하도록 形成, 創造하며 內面的으로는 人間안에 지니고 있는 感性을 陶冶, 克服하여 自律의 人格을 確立시키고자한다。이러한 人間의 目標에 向하여 自由로운 個我가 協同, 努力하는 人倫的 共同體를 그는 志向하는 것이다。『全人類植屬이 自己自身에 對하여 作用하는 全般的인 作用, 이 끊임없는 生活과 努力, 人間에 賦與될 수 있는 가장 高貴한 것을 受與하는 이 熱烈한 競爭, 自由가 그의 共同的 原動力인 無數한 車輪相互間的인 全般的인 交錯』 그리고 이곳에서 생기는 아름다운 調和의 理念보다도 더 崇高한 理念을 나는 모른다』고 그는 『學者의 使命』에서 말한다。이러한 人倫共同體에 各其는 그의 身分에 따라 社會共同勞動에 參與하며 그의 勞動價値에 따라 人間의 所有權과 生存權을 얻게 된다。그리고 이러한 人間의 所有權과 生存權은 다같이 平等하게 享受하여야 된다고 主張한다。이와같이 그의 社會主義에는 人格의 自由에 따른 人間의 基本權에서 社會共同體의 平等이 導出되어 自我의 自由理想과 社會主義의 理想이 異樣히 交織되어 있다。

그리하여 一般的으로는 個人主義와 社會主義는 相互對立되는 데, 反히에 있어서는 兩者가 結合되어 있다。이點 그에 있어서는 自我의 自由로운 人格觀念에서 必然的으로 社會主義理論을 論結하고 있

나. 이와 동시에 一般的으로 社會主義는 私有財産制度의 廢止를 主張하는데 피히테에 있어서는 이것을 모든 人格의 自由와 文化的 活動의 基礎로서 支持한다. 그러나 既存所有權의 擁護가 아니고 모든 理性의 人間能力의 發展을爲하여 所有와 勞動을 國家가 統制하는 社會主義理論을 展開한다. 그는 人間다운 生存을 可能케하여 人間을 道德的 精神的 自由의 人格으로 發展되도록 하는것이 그의 社會主義主張의 基礎이다. 學者가 피히테의 社會主義를 倫理的社會主義이라고 함은 이에 緣由하는 것이다. 피히테 社會主義의 特徵의 一은 社會主義가 世界主義 國際主義를 旗幟로 하는데 그는 國民的 個性의 問題를 強調한다. 맑스가 共產黨宣言에 「萬國의 無產者 階級은 團結하라」는 呼訴하는데 피히테의 「封鎖商業國家論」은 國民의 特性과 國民名譽感을 呼訟하므로써 끝맺고 있는것은 對蹠的이다.

以上 要約한 피히테의 社會主義의 特徵은 그의 理性國家의 構想에서 더욱더 顯著히 나타난다. 그가 要請한 理性國家는 歷史的 現實에서 抽出되는 現實的國家가 아니고 超個人的으로 妥當되는 理性에서 合法的關係를 抽出하는 理想國家이다. 그것은 現實的으로 實現되지 않으면서도 現實에 對하여 要求되는 課題로 보는것이다. 그리하여 歷史的現實의 國家를 어떻게 理性의 當爲에 따라 構想된 理性國家에 接近시키는가 하는것이 피히테의 國家政策이었다. 이點 科學的社會主義와 對立되는 學的 根據에서 그의 社會主義가 展開된다. 따라서 그의 社會主義는 그가 自認한바와같이 思辨的政治家의 「學者의 試案」에 不遇한것이거나 現實的으로 實行不可能한 性格을 띄고있다. 이곳에 觀念哲學에서 抽出되는 理性國家의 當爲가 現實에 無慘히 敗北되는 悲哀가 있다.

그러나 市民社會가 成立되지 않고 資本主義 發展이 端緒에도 이르지 못한 當時 後進 獨逸에 있어서 피히테가 展開한 問題는 市民社會와 資本主義社會에 內在해있는 核心理었다. 그는 近世以後로 發展한 重商主義와 自由主義의 弊害를 銳利히 指摘한다. 重商主義는 各國의 利己心으로 「하普遍的인 秘

密의 貿易戰」이 開始되어 國民間에 慘憺한 戰爭을 이끄는 國家的 利己主義이며 自由放任은 個人의 利己的인 끊임없는 競爭이 招來되어 個人의 利己主義으로 歸結된다. 이러한 兩體制은 部分이 全體에 個人이 社會에 國家가 人類에 從屬된 것이 없는 때문에 社會는 無秩序로 經濟의 福祉는 破壞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는 人格的自由와 經濟의 平等 國民主義와 世界主義를 그의 獨特한 體系內에서 解決코지한다. 이는 其後 十九世紀와 二十世紀의 世界가 對決, 解決하여야 할 問題의 焦點이며 적어도 十九世紀以後의 世界進行的 地下道가 그에 依하여 表示된 것이다. 事實 十九世紀以後로는 政治的自由와 經濟의 平等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의 綜合 이와 아울러 國民主義와 世界主義 國民國家 國民經濟와 世界國家 世界經濟와의 協同, 聯合의 問題가 時代의 課題의 中樞를 形成한다. 此히에는 時代의 制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어디까지든지 先驅者에 不過하다. 따라서 그는 이 새로운 問題에對하여 銳利한 歷史的感覺을 表示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認識論의 根據와 社會理論의 展開에는 許多한 誤謬가 있다. 따라서 우리時代는 이 問題에對하여 새로운 社會科學的 知識에依하여 眞摯하게 解決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汚濁한 世界를 根本적으로 革新하여 人類의 教師가 되려는 目的에가 眞理에對하여 不死의 努力을 傾注하여 얻은 結論을 輕蔑와 忘却의 深淵에 埋沒시키기는 너무나 貴重한 것이다. 歷史的 現實에對한 眞은 直觀的 洞察을 갖고 이것을 理論적으로 體系化하려고 苦闘한 그는 亦是 偉大한 社會思想家이라고 아니할수 없다.